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기술력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랑데부 문

핑크 골드 또는 스틸 버전으로 출시되는 랑데부 문 시계가 새로운 문페이스를 통해 더욱 여성스러워진 실루엣을 선보입니다. 컬렉션의 특징인 실버 기요세 다이얼과 핸즈, 플라워 모티프 숫자를 비롯하여 시간을 강조해주는 샤통 디테일이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품격을 드러냅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25A는 4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교체 가능한 스트랩이 장착되어 유행을 타지 않는 세련된 모델로, 언제 어디에서나 여성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문페이스의 새로운 매력

새롭게 선보이는 랑데부 문은 이전 모델과는 다른 매력을 드러냅니다. 참신한 디자인의 문페이스가 그랑 메종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노하우를 증명합니다. 6시 방향 디스크에 정교하게 폴리싱된 달은 경이로운 구름의 바다가 펼쳐진 별이 빛나는 래커 블루 밤하늘을 배경으로, 달의 다양한 위상을 드러냅니다. 보름달의 형태로 영롱한 광채를 발산하는 달은 정교한 원형 실루엣을 통해 랑데부 컬렉션의 주요 특징인 기하학적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상징적인 디자인과 코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랑데부 컬렉션의 코드들은 컬렉션이 출시된 이래로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세팅된 베젤을 통해 랑데부 컬렉션의 스타일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시계 내부의 다이얼에는 작은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47개가 장식되어 화려한 광채를 발산합니다. 다이얼의 기요세 패턴이 선사하는 입체 효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재 및 진귀한 스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하모니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요세 패턴의 시계로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워치메이커들이 함께한 오랜 시간과 수많은 정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랑데부 문 컬렉션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모델은 님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뛰어난 노하우와 기술력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혁신을 거듭하는,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주얼리 장인들의 영감이 깃든 세련된 시계가 더없이 여성스러운 시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랑데부 문

크기: 34 mm

두께: 9.56 mm

칼리버: 925A/1 – 오토매틱

케이스: 스테인레스 스틸, 핑크 골드

방수 기능: 5 bar

기능: 시/분/초, 문페이즈

파워 리저브: 40 시간

다이얼: 실버 기요세

다이아몬드: 107 개 - 0.7 캐럿

케이스백: 오픈

레퍼런스: Q3578430, Q3572430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최첨단 컬렉션들을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앳모스와 같이 수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